

## 세계속 지역패션 선보인다

### 대구 4개업체 '쁘레따 뽀르떼' 참가

한국패션센터는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기성복 전문 전시회인 '쁘레따 뽀르떼 파리(PRET-A-PORTER PARIS)'에 대구지역 4개 업체를 참가시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.

이에따라 파리 포르트 베르사유(Parque de Versailles)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㈜대경물산, ㈜주경, 니오물산, 앙비송 등 지역 4개 패션업체들이 참가해 2007년 봄/여름 시즌을 겨냥한 신상품들을 선보인다.

참가 업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

해 수출 130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고 패션센터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.

쁘레따 뽀르떼 파리는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매년 2월과 9월 두 번 개최되며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여성 기성복 전문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. /조현배기자 jhb@